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학원

http://daejangbu.com/

1. 밑줄 친 단어 중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오늘 이것으로 치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② 내노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 ③ 예산을 대충 걸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보시오.
- ④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와 눈길을 부딪치기를 꺼려했다.

[해설] [교재 4권 11회 모의고사]

정답 ② 내노라하는 → 내로라하는
내로라하다: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갈음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걸잡다: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2. 띄어쓰기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만도 하다.
- ② 내가 몇 등일지 걱정이 가득했다.
- ③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④ 그는 돕기는 커녕 방해할 생각만 한다.

[해설] 정답 ④ [교재 4권 5회 모의고사]

는커녕: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3. 밑줄 친 ㉠~㉣에 해당하는 한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목판이 오래되어 ㉠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판목을 다시 만들어 보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 보판 혹은 보수판이라고 한다. 판목의 일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부분을 깎아 내고 대신 다른 나무판을 박아 글자를 새기는 경우가 있다. 이 나무판을 ㉢ 매목이라고 하고, 매목에 글자를 새로 새긴 것을 ㉣ 상감이라고 한다.

- ① ㉠: 毀損 ② ㉡: 保版
- ③ ㉢: 埋木 ④ ㉣: 象嵌

[해설] 정답 ②

- ② ㉡: 보판(補板)

※ 다음은 어떤 사전에 제시된 '고르다'의 내용이다.(4~5)

■ 고르다1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에서 …을】 여럿 중에서 가려 내거나 뽑다.

■ 고르다2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동사」 【…을】

「1」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2」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고르다3 [고르다]. 골라[골라], 고르니[고르니].

「형용사」 「1」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2」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4. 위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서로 동음이의어이다.
- ②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③ '고르다 2'와 '고르다 3'은 다의어이지만 '고르다 1'은 다의어가 아니다.
- ④ '고르다 1', '고르다 2', '고르다 3'은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고르다3은 지문에 나타나 있듯이 형용사로 쓰인다.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가 붙을 수 없다. 그래서 현재형 어미가 붙는 동사와 차이가 있다.

5. 다음 밑줄 친 '고르다'가 위 사전의 '고르다 2'의 「2」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울퉁불퉁한 곳을 흙으로 메워 관관하게 골라 놓았다.
- ② 요즘처럼 고른 날씨가 이어지면 여행을 가도 좋겠어.
- ③ 그는 이제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 있다.
- ④ 이 문장의 서술어는 저 사전에서 골라 써.

[해설] 정답 ③

'고르다 2'의 「2」: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예문) 붓을 고르다.

줄을 고르다.

그는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 있다.

그는 목소리를 고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 ① '고르다 2' 「1」
- ② '고르다 3' 「2」
- ④ '고르다 1'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1)

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生涯 엇더흔고
 넷사롬 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天地間 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山林에 못쳐 이서 至樂을 므를 것가
 數間 茅屋을 碧溪水 얹피두고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도라오니
 桃花杏花는 夕陽裏에 썬여 있고
 綠楊芳草는 細雨 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造化神功이 物物마다 현스롭다
 (가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嬌態로다
 物我一體어니 興이이 다를소나
 柴扉에 거러 보고 亭子에 안자 보니
 逍遙吟詠하야 山日이 寂寂흔디
 閒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 구경 가자스라

- 정극인, 상춘곡 -

10.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홍진에 묻힌 분’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다.
- ②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이웃’을 끌어들이므로써 봄의 아름다움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④ 서사-본사-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음을 삽입하여 흥을 돋운다.

[해설] 정답 ② [21년 7월 모의고사 출제]
 상춘곡은 수간모옥 → 정자 → 시냇가 → 산봉우리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① 속세에 묻혀 사는 분들을 부르는(돈호법) 형식이다.
 ③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가자고 청유형으로 말하고 있다.
 ④ 여음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가)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와 산수 자연 사이에 가로놓인 방해물에 대한 불만
- ② 산수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과 합일하는 흥겨움의 마음
- ③ 산수 자연의 즐거움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④ 산수 자연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

[해설] 정답 ② [21년 7월 모의고사 출제]
 수풀 속에서 우는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고 있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잠자코 앉아 있노라면 한 큼직한 사람이 느릿느릿 들계단을 밟고 올라와서는 탑을 지나 종루의 문을 열고 무거운 망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는 한참동안 멍하니 서서는 음향에 귀를 ㉠ 기울였다. 음향이 끝나자마자 그는 망치를 ㉡ 매어 들며 큰 종을 두들겼다. 그 소리는 산까지 울리며 떨리었다. 우리는 그 ㉢ 종루지기를 둘러싸고 모여 몇 번이나 치는지 헤아려 보았다. 그러면 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다시 열까지 셀 수 있도록 곧 왼손의 ㉣ 엄지손가락을 굽혔다.

- ① ㉠: ‘기울다’의 피동사이다.
- ② ㉡: ‘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 ③ ㉢: 접미사 ‘-지기’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뜻한다.
- ④ ㉣: 가장 짧고 굵은 손가락으로 ‘무지(拇指)’라고도 한다.

[해설] 정답 ① [21년 6월 1일 문제풀이 강의]
 ㉠ ‘기울다’의 사동사이다.
 ㉣ 엄지손가락: 무지(拇指), 벽지(擘指), 대지(大指), 거지(巨指)라는 다른 이름이 있다.

13. 다음 로마자 표기법 중 옳은 것은?

- ① 순대 sundai
- ② 광희문 Gwanghimun
- ③ 왕십리 Wangsibni
- ④ 정릉 Jeongneung

[해설] 정답 ④ [교재 1권 p. 227]
 ① 순대 sundai → sundae
 ② 광희문[광희문] Gwanghimun → Gwanghuimun
 ‘니’ 는 ‘니’ 로 소리 나더라도 무조건 ui로 적는다.
 ③ 왕십리[왕십니] Wangsibni → Wangsimni

14. 대괄호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소리[音聲]의 특징을 알아보자.
- ② 모두가 건물[에, 로, 까지] 달려갔다.
- ③ 이옥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한다. [이상 전집 3(1958), 235쪽 참조]
- ④ 난 그 이야기[합격 소식]를 듣고 미소 짓기 시작했다.

[해설] 정답 ② [교재 1권 p. 206]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쓰는 것은 중괄호다.
 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17)

(가) (㉠)의 확산은 1930년에 접어들어 보다 빠른 속도로 경성의 거리를 획일적인 풍경으로 바꿔 놓았는데, 뉴욕이나 파리의 (㉠)은 경성에서도 거의 동시에 (㉠)했다. 이는 물론 영화를 비롯한 근대 과학기술의 덕택이었다.

(나) 하지만 뉴욕과 경성의 (㉠)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경성의 모던걸이 입은 패션은 동일해도, 그네들 주변의 풍경은 근대적인 빌딩 숲과 초가집만큼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경성 모던걸의 (㉠)은 이같은 근대와 전근대의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 (㉠)은 “일초 동안에 지구를 네박회”를 돈다는 전과만큼이나 빨라서, 1931년에 이르면 뉴욕이나 할리우드에서 (㉠)하던 파자마라는 ‘침의패션’은 곧 바로 서울에서도 (㉠)했다. 서구에서 시작한 (㉠)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전달되는 속도는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이었다.

(라) 폐쇄된 규방에만 있었던 조선의 여성이 신문과 라디오로, 세계의 동태를 듣게 되면서부터,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지구에 매달려 사는 자기 자신에도 큰 파동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규방 여성이 근대여성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신문이나 라디오 같은 미디어를 통해 속성 세계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디어는 식민지 조선 여성에게 세계적인 불안도 함께 안겨주었다. 자본주의적 근대의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동시에 던져 주었던 것이다.

(마) 근대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어 조선에 근대가 잠입해 올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미디어 덕분이었다. 미디어는 근대를 향한 이행을 식민지 조선에 요구했고, 단기간에 조선 사람들을 ‘속성 세계인’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15. 문맥상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행(盛行)
- ② 편승(便乘)
- ③ 기승(氣勝)
- ④ 유행(流行)

[해설] 정답 ④

본문은 “모던보이”란 책의 일부분이다.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유행이다.

성행: 매우 성하게 유행함.

예문) 초등학교까지 번진 과소비의 성행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16. 내용에 따른 (나)~(마)의 순서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다)-(라)-(마)
- ② (나)-(라)-(다)-(마)
- ③ (다)-(나)-(마)-(라)
- ④ (마)-(다)-(라)-(나)

[해설] 정답 ③

(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나 빨라 거의 동시적으로 서구에서 유행한 것이 한국으로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첫 부분은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로 시작하며 유행이 뉴욕과 경성(한국)에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 - (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17.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던걸의 패션은 뉴욕걸이나 할리우드 배우들과 동일했다.
- ② 신문이나 라디오는 조선 사람이 속성 세계인이 되도록 해 주었다.
- ③ 파자마 ‘침의패션’은 뉴욕과 할리우드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 ④ 식민지 조선 여성은 근대적 환상과 그 이면의 불안을 함께 안고 있었다.

[해설] 정답 ③

(다)를 보면 유행은 뉴욕이나 할리우드(서구) → 일본 → 한국으로 전달됨을 알 수가 있다.

18. 다음 밑줄 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것은?

- ① 비지땀을 흘리며 공부하는구나.
- ② 이분을 사랑채로 안내해 드려라.
- ③ 이렇게 큰 쌍동밤을 본 적 있어?
- ④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다.

[해설]

[교재 1권 p. 176]

정답 ① 비지땀: 몹시 힘든 일을 할 때 내리는 땀.

- ② 사랑채(舍廊채)
- ③ 쌍동밤(雙童밤)
- ④ 장작불(長斫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 “아노, 고향에 갑니다.” / 고향이 어딘데…….” / “삼포라구 아십니까?” /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해야 ㉠ 고기잡이나 하구 ㉡ 감자나 매는데요.” / “어허! 몇 년 만에 가세요?” / “십 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 다구.” / “뭣 땀예요?” / “넌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 “그럼 ㉢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 “바다 위로 ㉣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달이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곁에 정 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19. 문맥적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④ [21년 2월 모의고사 출제]
 신작로(新作路):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 (한자어)
 나머지는 모두 고유어.

20.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한 시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③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④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해설] 정답 ③ [21년 2월 모의고사 출제]
 이 작품은 산업화 속에서 폐허로 변한 고향을 상실한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21. 다음 시의 주된 정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既高 知足願云止
 - 乙支文德, 與隋將于仲文 -

- ① 悠悠自適
 ② 戀戀不忘
 ③ 得意滿面
 ④ 山紫水明

[해설] 정답 ③ [교재 2권 p. 242]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로, 그를 조롱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침략한 적장을 희롱하여 판단을 어둡게 한 뒤 계책을 써서 물리치는 데 이용한 작품이다.
 ① 유유자적: 여유가 있어 한가롭고 걱정이 없는 모양.
 ② 연연불망: 그리워서 잊지 못함.
 ③ 득의만면: 뜻한 바를 이루어서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 참.
 ④ 산자수명: 자연이 아름다움을 이르는 말

22. 다음 예문의 밑줄 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집갈 때 혼수를 간소하게 하라는 간절한 요청은 _____ ㉠ _____ 부잣집과 사돈을 맺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일시에 벗겨주었다.
 -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

- ①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어서
 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③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④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

[해설] 정답 ① [교재 4권 9회 모의고사 31번 문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임.

23.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차운 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 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 많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 조지훈, 완화삼 -

- ① ‘구름, 물길’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내적 현실을 암시한다.
- ② ‘마을’은 방황하던 서정적 자아가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③ ‘나그네’는 고향을 떠남으로써 현실의 질곡을 벗어 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 ④ ‘한 많음’은 민중적 삶 속에 구현된 전통적 미학에 맞닿아 있는 정서를 대변한다.

[해설] 정답 ① [군무원 시 정리 수록]
이 시에서 구름, 물길은 나그네의 방랑 생활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나그네의 방랑의 이미지를 구름, 물길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24. 다음 한자어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천루(摩天樓) - [마천누]
- ② 공권력(公權力) - [공편녁]
- ③ 생산력(生産力) - [생산녁]
- ④ 결단력(決斷力) - [결탄녁]

[해설] 정답 ① [교재 1권 p. 181]
마천루[마철루]: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
표준 발음법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에 따라 [마철루]로 발음한다.

25.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변방이 아니다. 세계화는 점점 더, 과거와는 분명 다르게 우리가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 하지 않게 되었다. 한국인의 예술성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전략’이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시장에 우리의 예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한국인의 끼는 각별하다. 신바람, 신명풀이가 문화유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민족이다. 게다가 신이 나면 어깨춤 덩실덩실 추던 그 어깨 너머로 쓱 보고도 똑딱 땀만 만들어낼 줄 아는 제주와 감각도 있고, 문화선진국의 전문가들도 감탄하는 섬세한 재능과 디테일한 예술적 취향도 있다. 문화예술의 시대를 맞은 오늘날, 우리가 먹거리로 삼을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바탕들이 다 갖추어진 유전자들이다. 선진이 선진이고 후진이 후진이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선진이 후진 되고 후진이 선진될 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법이다. 우리 앞에 그런 전환점이 놓여 있다.

- 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실리감각
- ②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포부
- ③ 냉엄한 국제질서에 따른 각박한 삶
- ④ 사라져 가는 미풍양속에 대한 아쉬움

[해설] 정답 ②
본문은 한국은 문화예술 시대에 알맞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고,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머지 선지들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정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모두 애쓰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

군무원 대장부 학원

<http://daejangbu.com/>

확실한 실력!

국어
새로운 기준



국어 **신한중**

대장부 군무원
국어 **신한중**입니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육군 중위 전역
현) 군무원 대장부 국어 강사
현) 대치 이강학원 국어 강사
현) 강남대성마이맥, 강남하이퍼 국어강사
현) 육사 / 경찰대 국어 대치동 1타 강사
현) 스키아에듀 국어 강사